



존 칼빈(John Calvin)의 목회관 연구

- 기독교 강요를 중심으로 -

A Study on John Calvin's Pastoral Viewpoint

김 지 호

(조직신학)

目 次

- I. 들어가는 말
 - II. 목회의 전제
 - III. 그리스도의 구속
 - IV. 그리스도의 恩惠를 받는 方法으로서의 복음사역
 - V. 목회의 內的 實體(그리스도와 그의 유익)
 - VI. 목회의 목표(구원)
 - VII. 마치는 말
- 참고문헌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I. 들어가는 말

레이 앤더슨(Ray S. Anderson)박사는 오늘날 신학계에 두 가지의 신학적 조류가 흐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는 신학을 실용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 프락시스(praxis)의 와중 속에 신학을 밀어 넣어버리는 것이요(정치신학, 흑인신학),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은 ‘실천 신학’(Applied theology)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순수 신학’(Pure theology)을 추구하는 것이다.¹⁾

과연 교회는 그 삶의 현장으로부터 이론적인 탁자를 분리시킬 수 있는가? 이런 이 분설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두 가지 위험을 직면하게 된다. 그 첫째는 신학적인 사상들(theological thinking)이 사역 중심인 교회로부터 격리됨으로서 그것이 비록 순수하더라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고, 둘째로 목회자가 경험을 통해서(프락시스, praxis)만 신학을 수립하게 됨으로 그것은 방법론적이지요 실용적인 관심에서 솟아난 것 외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²⁾ 그러므로 교역을 위한 작업은 교역 자체의 성결과 위치를 가려내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현상과 원리는 목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관점이지요, 어느 한쪽을 결코 취사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바른 자세와 견해가 요구되며, 한걸음 더 나아가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관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올바른 목회관의 정립은 필수적이다.

칼빈주의자들은 그 신학의 뿌리를 종교 개혁자 칼빈(John Calvin, 1509-1564)³⁾의 성경해석과 그 방법론에 두고 있다. 결국 순수 신학(Pure Theology)과 실천 신학(Applied Theology)의 두 맥이 뗄 수 없는 상관관

1) Ray S. Anderson, *Theological Foundations For Ministry* (Eerdmans: T. & T. Clark), p. 6.

2) Ibid. “목회(pastoral)”는 목자가 양을 치는 것같이,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聖徒)들을 진리로 가르치며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목회”라는 단어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교회를 먹인다”하는 뜻이다. 즉 목사(牧師)의 “牧”자와 교회의 “會”자가 연결된 단어로서, 목회는 목사와 교회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이 단어 속에는 무한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김병원, 「목회학」, 서울: 개혁주의 신행협회, 1988, p. 11).

3) 칼빈(John Calvin, 1509-1564)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김지호, 「칼빈·칼빈주의」, (용인: 칼빈신학원출판사, 2005), pp. 71-92까지 “칼빈의 생애”와 pp. 233-238까지의 “부록, 칼빈의 연감”을 참고하기 바란다.

계를 갖는 것이라면, 그의 신학에서 또한 신학의 직접적인 적용인 “목회관”도 도출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가정은 칼빈이 단순히 이론적인 순수 신학에만 매달렸던 사람이 아니요, 그는 28년간 직접 목회 하였던 목회자였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⁴⁾ 칼빈은 그의 저서, 특히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에서 목회에 대한 명명한 천명은 없을지라도 「기독교 강요」1536년 초판과 1559년 최종판을 비교하면, 그의 목회 활동이 「기독교 강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것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⁵⁾ 그러므로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는 “칼빈의 목회관”을 정립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래서 논자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목회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에 관한 논의들을 보면서 원리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라는 전제아래 칼빈이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 밝히고 있는 목회신학⁶⁾적인 제언을 중심으로 “칼빈의 목회관”을 연구함으로써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신선한

- 4) 신복윤, 「칼빈의 신학 사상」(서울: 성광문화사, 1993), 258. 칼빈은 일평생동안 28년간 목회생활에 몸을 바쳤다. 1436년 8월에서 1538년 4월까지 제네바에서 2년 동안 목회를 했고, 제네바를 쫓겨나 당시 독일령이었던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3년간(1538년 9월-1541년 9월) 프랑스 피난민 교인들을 위하여 교회 일을 보았다. 1541년 9월 다시 제네바의 초청을 받아 1564년 5월 27일 죽을 때까지 23년간 거기서 목회활동을 하였다. 우리는 칼빈을 종교개혁가요, 신학자요, 성경주석가요, 교회조직자요, 설교자요, 목회자라고 부른다.
- 5)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은 1536년에, 최종판은 1559년에 나왔다. 그런데 칼빈은 초판에 이어 1539년에 두 번째 판을 출판하였고, 제3판은 1543년에 출판하였으며, 계속해서 1545년, 1550년, 1553년, 1554년에 출판했으며, 라틴어로 된 1559년 최종판을 불어로 1560년에 출판하였다. 여기서 초판의 신학사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의 신학 사상이 다음 판에 내포 되면서 재편집되었음을 유의해야 한다. 초판은 300여 페이지였고, 최종판은 1500여 페이지에 달하는데 초판과 최종판이 매우 중요하다.
- 6) 목회신학, 즉 목회를 학문적인 차원에서 고찰한다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김득룡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로 목회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고, 둘째로 목회에 대한 형태와 구조를 이해하며, 셋째로 오늘에 있어서의 목회전략을 이해하는 것, 등 이 세 가지 문제를 연구 파악하는 것이다(김득룡, 「현대 목회학 신강」,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4, p. 11).

충격과 목회철학에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되는 계기를 삼고자 한다.

II. 목회의 전제

목회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해 할 때, 구원에 대한 참된 의미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은 목회의 전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구원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구원이란 말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사용될 때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타락”이란 말이 “원래의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임을 생각해 볼 때, 구원은 그 상태에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구원은 구원받는 대상인 인간과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셈이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고, 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결국 “구원”이라는 말은 인간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1.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주의 창조와 성경의 일반적인 교훈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 자신을 구속주로 보여 주셨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창 1:1) 우주를 무한하신 권능으로 유지하시며, 지혜로 다스리신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근원이시기도 하다. 결국 존재하는 그 어느 것 하나 그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롬 11:36).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리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경건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필수 조건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한 그분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7)

한편 하나님께서 모든 선의 근원이며 원천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부패성이 그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찾지 못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경건한 마음은 처음부터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만물이 그의 지배하에 있음을 알고, 그가 만물의 안내자요 보호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를 신뢰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과 결합한 신앙에서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자발적인 경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법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정당한 예배를 수반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뢰와 경외를 포함한다.⁸⁾ 이와 같은 사실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전제되어야 할 대 전제라고 사료된다.

2. 인간의 실존

칼빈은 “인간의 실존에 관한 관점은 인간 법정의 공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늘 법정의 공의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의로운 사람은 없다”⁹⁾고 하였다.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대표하여 범죄였으며, 그로 인하여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다. 이것이 원죄이다. 인간의 원죄 본성이 부패한 것이며 벌을 받아야 하지만 창조된 본성에서 온 것은 아니다. 원죄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칼빈은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첫째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드는 일이다. 우리의 본성은 철저하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의와 결백과 순결 외에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는 하나

7) John Calvin,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한철하외 3인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제 I 권. 2장. 1절. 이후로는 Inst., I. 2. 1.로 표기한다.

8) Inst., I. 2. 2.

9) Inst., III. 12. 1.



님께 당연한 정죄를 받고 있다. 둘째로 원죄는 단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시초의 의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은 선이 결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가만히 있도록 놔두지 않는 각종 악을 생산할 능력이 풍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원죄를 육욕이라고 말함이 적절하다.¹⁰⁾

그러므로 죄는 인간 전체를 전복시킨다. 죄는 단지 인간의 감성부분만을 혹은 육의 일부분만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고, 전 인격이 죄로 물들었다. 로마서 3장은 원죄에 대한 묘사에 불과하다(롬 3:1-20절) 영혼의 우수성과 존귀성이 특히 빛나는 부분이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히 부패하기까지 해서 치유를 받으며 새로운 본성을 입어야 할 형편이라는 결론이 된다.¹¹⁾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¹²⁾ 그래서 목회관에 대한 인식론적 본질은 계시 중심적이다.¹³⁾ 그러므로 심판자가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법정적 개념의 심판자가 아니요 도저히 죄와 흠이라고는 그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분임으로 밝혀질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욥 4:17-20)이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10) *Inst.*, II. 1. 8.

11) *Inst.*, II. 1. 9.

12) *Inst.*, I. 1. 3.

13) K. O. Gangel, *Leadership for Church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70), p. 33. 인식론이란 지식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식의 근원설(根源說)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설이 있다, 첫째로 경험론으로 오감 각 기관에서 구하는 것이고, 둘째로 유리론(唯理論)으로 이 성에서 구하는 것이고, 셋째로 인식론상의 이원주의(二元主義)는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오관(五官)과 이성의 양자에서 구하는 것이며, 넷째로 신비주의는 신비적 직각(直覺)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목회관에서 지식의 근원은 계시주의(啓示主義)에서 구하는 것이다.

3. 인간 구원의 근원인 하나님의 사랑

칼빈은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감사하게 된다.”¹⁴⁾고 하였다. 우리 마음은 우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려준다. 최고의 의의인 하나님은 불의를 사랑하실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미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자하신 주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것을 잃지 않고자, 우리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 그래서 그는 거저 주시는 순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은총을 베풀려 하신다. 의와 불의는 화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해를 얻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손을 쓰셔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셨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비와 아버지 같은 사랑을 받으실이다”¹⁵⁾

이렇듯 인간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구원과 목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인간의 부패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 사야 선지자는 외치기를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사 40:9)라고 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기 위함이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는 구원의 여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창 1:1). 그리고 우리를 조성하셨

14) *Inst.*, II. 16. 2.

15) *Inst.*, II. 16. 3.

을 뿐 아니라, 구속하시는 자이시다(사 43:1).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시작이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목회가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된다. 목회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다.¹⁶⁾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신 때부터 자신의 목회를 시작하셨다. 전적인 타락 상태에서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며 구원을 위한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가 목회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편 23:1)라는 다윗의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말해 주는 신앙고백임을 상기해볼 때, 목회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연원(淵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목회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을 사람으로부터 알게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이로서 발견된 우리 자신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제로 구원의 필요성을 성도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다.

Ⅲ.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구속은 목회의 전제가 되는 구원의 원천이다. 그러므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중보자만이 타락한 인간을 도울 수 있으며,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 구원을 위한 활동들을 고찰 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에 나타난 목회관을 돌출해 보고자 한다.

16) 창 1:1; 요 1:1. 목회의 형이상학적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형이상학이 실체를 논하는 학문으로 최고 원리, 즉 제일 원리의 학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우리들이 감각하여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배후에는 본체가 있을 것이라는 탐구의 학이다(K. O. Gangel, *Leadership for Church Education*, pp. 32-34).

1. 타락한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중보자

믿음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처음 사람의 타락한 이후로 중보자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구원을 얻게 하는 힘이 없었다.(롬 1:16; 고전 1:24), “영생은 아버지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며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이다.”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17:3) 그리스도의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을 구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분이시(요 10:9)는 선언은 정당하다. 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엡 2:3) 선언된 사람들은 화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상식인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 한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성향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전도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결국 중보자인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것이다.¹⁷⁾

목회의 전제가 되는 구속사역은 유일한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사역으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실 유일의 대안이다.

2.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분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신 것은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하늘 결정에서 유래

17) *Inst.*, II, 4, 1.

했다.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송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사태는 확실히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셔야 할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에게 접근을 할 수 없고, 우리의 불결과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 사이에는 있는 심대한 부조화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서 친근하게 우리 사이에 두심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케 하셨다.(히4:15) 그래서 칼빈은 “그분은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하는 일없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오신 것이다”¹⁸⁾라고 주장한다.

3.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

중보자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의 이들이신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로 되시려고, 쾌히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자신을 우리와 더불어 거룩한 형제 관계로 이루시고 전적으로 자신의 것인 천국을 같이 상속할 수 있는 형제요 후사로 삼으셨다(롬 8:17).

같은 이유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분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것이 필수적이었다. 그의 임무는 죽음을 삼키고 죄를 정죄하는 것이었다. 의(義) 자체이신 이가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을 것이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로 정하셨을 때에,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롬 5:8).¹⁹⁾

18) *Inst.*, II. 12. 1.

19) *Inst.*, II. 12. 2.

4.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 세 가지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다음 세 가지 직책에 관계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율법 하에서 기름 부음은 제사장과 왕, 그리고 예언자에게도 주어 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왕일 뿐 아니라 예언자로서의 자격도 가지신 분이다.

1)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직책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사 61:1-2; 눅 4:18). 분명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에게 기름부음을 받아 아버지의 은총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임명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방법으로 된 일이 아니다. 비슷한 직책을 가진 다른 교사들과 그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즉 그가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은 그 자신이 가르치는 직책을 다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그의 몸 전체를 위해서 받으심으로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전하신 완전한 가르침이 모든 예언을 종결시켰다는 것은 확실하다.

더불어 이 기름부음이 머리로부터 지체들에 확산되어, “너희 아들이 예언하며 너희 딸들이 이성을 볼 것이며”(을 2:28)라고 하는 요엘의 예언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예언자로서의 위엄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 완전한 지혜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고 하였다.

2)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직책

왕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쓰는 것은 기름이나 향기로운 연고가 아니다.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셨기 때문이다(사 11:2). 이것이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다”고 시편이 선언하는 그 “즐거움의 기름”이다(시 45:7). 왕이 이와 같이 출중함으로 그 풍성하심을 모든 자에게 나눌 수

20) *Inst.*, II. 15. 1.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자기의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다(엡 1:20).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적으로 가진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이룰때면 간접적으로 통치하며 보호하기로 정하셨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임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것이다.²¹⁾

3)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책(화해와 중보)

그는 순결 무죄한 중보자로서 자기의 성결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시려는 것이다. 죄로 죽을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주시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속죄가 사이에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이 직책을 다하려고 그리스도가 제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과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으므로,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에게만 속한다고 한다(히 9:22).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불결한 범죄와 죄 때문에 길이 막혔던 그 은총을 우리에게 얻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효험과 혜택을 얻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제사장직은 율법 하에 불완전한 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이 필요하여 성소에 들어갈 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다(히 9:7). 그는 단번에 자신의 의로운 피를 흘려 속죄를 이루시고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그런 분이시다. 그 제사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청산시키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성경기자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다²²⁾(시 110:4; 히

21) *Inst.*, II. 15. 4, 5.

5:6; 7:15).

5. 그리스도의 구속에 나타난 목회관

그리스도의 구속에 나타난 목회관이란 그리스도의 구속은 목회의 완전한 모형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방법은 가장 완벽한 목회의 방법이라는 사실과 영혼의 돌봄이야말로 진정한 목회라는 사실을 확인코자 한다.

1) 목회의 완전한 모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스도의 구속이 없이 목회가 있을 수 없다. “목회”의 성경적 근거는 목자(The Shepherd)와 목양(牧羊: The Shepherding)의 개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²³⁾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 80:1)이시며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양들의 위대한 목자로서 그의 계약적인 사랑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입증해 주었다(시 10:11). 이처럼 목자가 그 양들을 향한 끝없는 완벽한 희생정신의 출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요 10:11)는 말속에 자신이 그 양들을 위하여 어떤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목자(The Shepherd)”가 되실 것인가를 보여주셨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 주신 구속이 목회의 원형이 되는 것은 바로 목회가 가지는 헌신적인 사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가장 완벽한 목회의 방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의 중보자가 될 분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것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신 것은 절대적인 필연성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극히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결정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힘이 없으

22) *Inst.*, II. 15. 6.

23)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서울: 종신대학 출판부, 1980), p. 87.

므로 숭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사태는 확실히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더러운 인간은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범접할 수 없었으므로 그분은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하는 일없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오신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목회가 어떠한가 하는 것인가를 보여준다. 정말로 목회는 목자가 그 양을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돌보려고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되 그 양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목자의 구미에 맞추어 양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구속 방법에서의 모범처럼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목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3) 영혼의 돌봄으로써의 목회

목회라는 말이 헬라어의 ‘ποιμνν’에서 나오는 말로서 “양떼를 먹이고 돌본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또 독일어에 있어서의 “목회”란 Seelsorge²⁴⁾라고 하고 화란어의 경우는 Zielzorge이다. 이 두 말은 다같이 “영혼을 돌본다.”는 뜻을 가진 합성어이다.²⁵⁾ 이 말들이 지닌 의미는 “치료” 또는 “돌봄”인데 특히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돌본다는 의미의 것이며, 간호원이 환자를 돌본다는 뜻으로 쓰여 지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의학적 돌봄”(Medical Care)과 “영혼의 돌봄”(Pastoral Care)은 구별을 지어야 한다.²⁶⁾

24) Seelsorge라는 말은 “영혼의 병 치료”라는 의미로 목회를 이와 같은 의미로 처음으로 사용한 자는 칼빈이다. 그는 이것을 목회신학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믿고, 영혼의 개인적인 보살핌에 대한 진지한 실천을 하였다. 그는 목회 정치제도와 교회 조직의 원리를 확립하였으며, 교회정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김병원, p. 37).

25) 정성구, p. 89.

26) Carroll A. Wise, *The Meaning of Pastoral Care*, (Harper & Row, 1966), p. 8. 마틴 부처(Martin Bucer, 1491-1551)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최초목회신학 형성자”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쾰리히와 함께 목회학의 기초를 쌓은 자이다. 부처는 목회신학에 다섯 가지 범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그러므로 목회는 전인(全人)으로서의 인간 영혼에 대해서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직접 보여주신 목회의 원리인 것이다.

IV. 그리스도의 恩惠를 받는 方法으로서의 복음사역

목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은혜의 원천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자세히 고찰 하고자 한다.

1.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서의 목회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주신 유익들은 그리스도 자신이 사적으로 쓰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빈곤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다.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받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가 우리밖에 계시고 우리가 그와 떨어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무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의 것이 되며 우리 안에 계시야 했다. 그는 우리의 “머리”(엡 4:15),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롬 8:29)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를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는 그 유익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

소개하고 있다. 첫째로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들을 불러들이는 일. 둘째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 있던 자들을 인도하는 일. 셋째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일. 넷째로 약하고 병든 그리스도인을 강하게 만드는 일. 다섯째로 건전하고 강한 그리스도인을 훌륭한 일에 전진케 하는 일 등이다. 이어 그는 이런 일을 하려면 공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가정 방문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목사만이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자들도 해야 한다고 하였다(John T. McNeill, *A History of the Cure of Souls*, N. Y.: Harper & Bros, 1951, p. 178).

이다. 즉 우리가 그와 한 몸이 되기까지는 그가 가지신 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얻는 것이다.²⁷⁾

그러나 복음을 통해서 누구나 무차별하게 그리스도와 친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그에 관하여 증거를 하시게 하셨다(요일 5:6-7) 이것은 그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이다. “성령의 증거”란 이 증거가 우리의 마음속에 인(印)과 같이 새겨진 것으로 느끼며 그 결과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한 정화와 희생을 우리 마음에 인친다.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시는 띠는 성령이다.

성령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3).” 성령께서는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요한이 가르친바 “이 사람들은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요 1:12-13)는 말은 성령의 감동이 없었으면 여전히 무 신앙으로 살았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였다. 바울 역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살후 2:13)”라는 말을 통해 믿음의 유일한 근원은 성령이라고 간단히 일깨워 주고 있다.²⁸⁾

1)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롬 10:17)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도착할 목표를 지정하신 것같이, 복음이 우리를 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로 가는 바른 길을 걸을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교훈을 불가분리의 동반자로 서로 결합시킨다. 우

27) *Inst.*, III. 1. 1.

28) *Inst.*, III. 1. 1.

리는 믿음과 말씀 사이에 항구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 둘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은 태양에서 나오는 광선을 태양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선포하신다(사 55:3).

믿음을 지탱하며 유지하는 근거는 말씀이며 말씀에서 떠난 믿음은 넘어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하면 믿음은 조금도 남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시든지 또는 자신의 힘만으로 하시든지 간에 자신에게로 끌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고 정의한다(롬 1:5). 또한 우리는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의 말씀에서 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지식의 근거는 하나님의 진실성을 먼저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확신이 없으면 말씀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성불가침의 진리라고 확신해야 한다”²⁹⁾고 주장한다.

2) 은혜의 근거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다 사람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므로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는 그 때 믿음이 말씀 안에서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선언에서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본성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를 찾는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며 염려하신다고 선언하실 때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된다. 따라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비하시다고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약속 곧 은혜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 이외에

29) *Inst.*, III. 2. 6.

서는 안식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믿음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친바 된다.³⁰⁾

이렇게 볼 때 은혜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믿음에 대하여 말씀이 가지는 의의

나무의 열매를 위해서 뿌리가 필요한 것과 같이, 믿음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이는 다윗이 증거 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제외하지 않는다. 이 권능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합당하게 공경할 수 없다. 칼빈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얻지 않으면 소멸 한다”³¹⁾는 것이다.

2. 교회의 필요성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가져오신 구원과 영원한 부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키우며 목적지까지 전진시키려면 무지하고 태만한 우리들에게는 외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약점에 대비해서 필요한 보조 수단도 첨가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파가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이 보물을 교회에 맡기셨다. 목사와 교사들을 임명하셔서(엡 4:11) 그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게 하셨

30) *Inst.*, III. 2. 7.

31) *Inst.*, III. 2. 31

으며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끝으로 신앙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칼빈은 교회의 필요성을 성례와 관련시켜 다음과 같이 서술 한다:

성례는 그것에 참가함으로써 그것이 신앙을 자라게 하며 강화하는데 매우 유익한 보조 수단임을 체험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 받을 뿐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성인이 되고 드디어 믿음의 목적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³²⁾

이렇듯 칼빈에게 있어서 성례는 교회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 주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것이었고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³³⁾

3. 교회를 통한 올바른 교육으로서의 목회

바울의 글에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한다(엡 4:10-13).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만드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즉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이사야는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구별하는 표지를 말하였

32) *Inst.*, IV. 1. 1.

33) 칼빈에게 있어서 성례식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매주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려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여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그 후 경험을 통해서 일 년에 네 번 거행하였는데, 부활절, 성령강림주일, 9월 첫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이었다. 세례식은 반드시 교회에서 행하되, 이때 세례에 관한 설명을 길게 하도록 하였다(신복운, 272).

다. “네 위에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사 59:21).

옛날에 백성을 천사들에게 맡기시지 않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옛날에 율법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제사장들을 세워 율법의 참뜻을 해석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 배우도록하신 것과 같이(말 2:7), 지금도 우리가 율법을 정독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신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의 권능은 외면적인 수단에 매이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교라는 평범한 방법에 매이게 하셨다. 광신자 중에서 설교의 불필요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를 위해서 어느 시대나 예언자와 경건한 교사들은 불경건한 무리와 어려운 투쟁을 했다.”³⁴⁾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율법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교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개혁주의 학술원

V. 목회의 內的 實體 (그리스도와 그의 유익)

목회의 내적 실체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실제적인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칭의³⁵⁾와 성화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 칭의,

34) *Inst.*, IV. 1. 5.

35) 칼빈은 칭의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로 간주되고, 이 의 때문에 용납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인한, 혹은 죄인으로 간주되는 한, 어떠한 인간

칭의 교리는 선행을 배제하지 않음, 성례와 목회 그리고 교회와 목회 등으로 나누어서 고찰하도록 한다.

1. 칭의와 성화의 관계³⁶⁾

소위 내실적 신앙과 형식적 신앙을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분리될 수 있다고 보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할 줄 모르며 경건한 생각이 전연 없는 사람들도 구원에 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모두 믿을 수 있다고 상상한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모르는 일종의 신념을 감히 “신앙”이란 이름으로 장식한다. 그들은 신앙과 찬동을 동일시하며,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도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동의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선 알아야 할 일을 모르고 있다. 즉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을 얻는 것인지, 혹은 성령께서 신앙을 통해서 사람이 양자가 된 것을 증거 하는 것인지를 문제이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기초로 삼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화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믿음을 경건한 성향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³⁷⁾

오시안더(Andreas Osiander, 1496-1552)는 죄의 용서와 중생을 혼합해서 이 둘은 하나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서도 따로따로 기록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잘 보이게 한다. 바울이 우리의 의와 성화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죄인)도 하나님의 은총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다”고 설명한다(Inst., III. 11. 2).

36) 칼빈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의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함으로써 생기게 된 구원의 선행주의와 칭의와 성화를 완전히 분리시킨 루터파의 견해에 대한 양대 극단적인 견해에 대해서 칼빈은 성화와 칭의를 동일시하지도 않고, 분리하지도 않으면서 구별되는 것으로 보고 구별되면서도 하나의 양면으로 보는 독특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37) Inst., III. 2. 8.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할 때에(고전1:30), 그는 불필요한 말을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얻으신 구원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출발점으로 삼아 우리는 거룩하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논할 때, 그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한다. 즉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태양의 빛과 열처럼 연결이 되지만 다른 것이고, 그것은 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이다.³⁸⁾

2.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칭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은 사람이 자신 만으로서는 의롭지 않으나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며 전달됨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과 같다. 자기 밖에서 의를 찾으라는 지시를 받는 사람은 그 자신 안에 의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 사도는 극히 분명하게 주장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후 5:21). 우리의 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의를 소유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기 때문이란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의를 완전히 또 풍부하게 가졌다.³⁹⁾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것이다.

우리의 구원의 시초였고 완성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는 길을 열어 주셨을 뿐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야 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바울이 조금 전에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우리는 그를 우리의 의로서 받는다(고전 1:30).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든든하게 터로 삼은 사람이다.

38) *Inst.*, III. 11. 6.

39) *Inst.*, III. 11. 23.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지신 것은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을 돕기 위해서 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의(義)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한다(고전 1:30). 참으로 바울은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였다(엡 1:4-5). 바울의 말들을 더 인용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의 정죄에서 구속되고 멸망을 면하게 되었으며(골 1:14-20),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자녀와 후사로 선정되었으며(롬 8:17; 갈 4:5-7), 이렇게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으므로(롬 11:19), 이미 영생에 뿐 아니라, 간단히 말하면 그의 것이 모두 우리 것이며, 그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으므로,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⁴⁰⁾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기초이며,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시다.

3. 칭의의 교리는 선행을 배제하지 않음

사람은 행위와 공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은 결코 선행을 폐지하거나 배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성립하는 칭의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선행은 굳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칭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면 동시에 거룩함도 붙잡지 않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기” 때문이다(고전 1:30).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면 반드시 동시에 거룩하게도 만드신다. 이 은혜들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유대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의와 거룩함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두 가지를 다 포함하시며, 그

40) *Inst.*, III, 5, 5.

들은 서로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우선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둘로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전 1:13).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와 떨어진 것이 아니면서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이 사실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참여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에 못지않게 거룩함을 포함한다.⁴¹⁾

칭의 교리가 공로에 대한 관심을 빼버렸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선을 행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고 비난한다. 선행을 칭의의 방편으로 삼는 것은 보상으로부터 공로를 추론하고 있는 것이다. 즉 보상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은 바른 생활을 하려고 주의 않는다고 그들은 말하지만, 사람이 보상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노동을 파는 것과 같이 무익한 것이다.

사람을 정녕 자극해야 된다면 우리가 구속과 부르심을 받음 목적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이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도 사악한 배은망덕을 폭로한다(요일 4:19, 10절). 거룩함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이 거룩하시기에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다(요일 3:3).⁴²⁾

4. 성례와 목회

칼빈의 목회에 있어서 성례가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⁴³⁾ 그래서 성례의 진정한 임무는 무엇이며, 그리스도는 성례를 통하여 어느

41) *Inst.*, III. 14. 1.

42) *Inst.*, III. 14. 2.

43) 칼빈에게 있어서 성례식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매주일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그렇게 하려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하여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하다가 그 후 경험을 통해서 일 년에 네 번 거행하였는데, 부활절, 성령강림주일, 9월 첫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었다. 세례식은 반드시 교회에서 행하되, 이때 세례에 관한 설명을 길게 하도록 하였다(신복윤, 272).

정도 자신을 보여 주고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성례에서 보다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성만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성례의 진정한 임무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직책,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하며 그의 안에서 하늘 은혜의 보고를 제시하는 직책을 가졌다는 것을 확정된 원칙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성례와 성례에 쓰이는 포도주나 기름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성례에는 숨은 힘이 결합되어 있어서, 잔에 포도주를 따르듯이 그 힘으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례에 부여하신 기능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며 확인해 주는 것이다. 또 성령께서 동반하지 않으면 성례는 더 이상의 유익이 없다. 성례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온 사사 또는 담보물이다. 그 자체로는 아무 은혜도 주지 않고, 다만 부요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며(성례는 담보물과 표이므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확증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정하신 성례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임재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집행할 때에 결실이 없고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집행을 구별해서 따로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주의해야 할 한 가지 점은 목사가 설명하며 외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성취하시며 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넘기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경고한 것처럼 “어떻게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성결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의 사역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성례로 그렇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은혜로 하신다. 또한 거기에는 보이는 성례의 모든 결실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은혜에 의한 성화가 없이는 이 보이는 성례들에서 얻는 것이 무엇인

가?⁴⁴⁾하는 것이다.

2)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성례에서 보다 완전하게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더욱 완전하게 계시될수록 성례는 더욱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한다. 세례는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며 성만찬은 우리가 구속을 얻었다는 것을 확증한다. 물은 씻음을, 피는 구속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요일 5:6). 곧 씻으며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증거 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요일 5:8). 물과 피는 깨끗하게 하며 구속하는 증거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성령은 이런 증거를 우리가 확신하게 만드신다. 이 숭고한 신비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러나온 때에(요 19:34)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홀륭하게 제시되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십자가를 우리의 성례의 원천이라고 불렀다.⁴⁵⁾

3) 그리스도의 성만찬: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시고 종으로서가 아닌 아들로 여기셨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담보물을 주셨다. 즉 독생자가 손을 거쳐 그의 교회에 한 성례-영적잔치-를 주시고 이 잔치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생명을 주는 떡임을 확증하셨다.

첫째, 표징은 떡과 포도주다. 이 표징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서 받는 보이지 않는 양식으로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세례에서 우리를 중생 시키신 후에 교회라는 그의 공동체에 접붙이시며 택함을 받은 그의 권속으로 만드신다. 또한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생명을 유지하도록 양식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초대하셔서, 그에게 참여함으로써 힘을 회복하며 하늘 영생에 도달할 때까지 몇 번이고 기쁨을 얻

44) *Inst.*, IV. 14. 17.

45) *Inst.*, IV. 14. 22.

도록 하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신자가 은밀하게 연합된다는 이 신비는 본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리의 적은 능력에 가장 적합한 보이는 표징으로 그 신비의 형상을 보여 주신다. 즉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영혼은 그리스도에게서 양식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신비스러운 복의 목적은 그 음료와 떡을 먹으면서 주의 독특한 희생의 역사를 느끼며 주의 피가 이미 우리를 위해서 흘려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우리의 신앙을 세운다.⁴⁶⁾

성도들은 성례에서 큰 확신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그의 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증거를 얻는다. 그 결과 우리는 그가 상속하신 영생이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을 감히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감격이 있다. 우리와 같이 인자가 되셔서 우리의 무력함을 싸매시고 우리의 빈곤을 받으시고 그의 풍부하심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⁴⁷⁾ 성찬의 특별한 결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이 성례에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눈앞에 계시며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같이 생각해야 한다.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우리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받아먹으라. 그리고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휘하는 내 몸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니라”(마 26:26-28, 고전 11:24) 받으라고 명령하심으로서 그것이 우리 것임을 알리며, 먹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우리의 일체가 됨을 알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의 몸을 주시며 피를 흘리신다고 언명하심으로써 그 두 가지가 그의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것이라고 가르친다. 몸과 피를 취하셨다가 다시 내 놓으신 것은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⁴⁸⁾ 성례는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46) *Inst.*, IV. 17. 1.

47) *Inst.*, IV. 17. 2.

48) *Inst.*, IV. 17. 3.

성만찬이 주는 약속의 의미는 성례에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기능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의 피는 참된 음료며(요 6:55), 그것을 먹는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요 6:54) 선언하신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죽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요 6:48)고 하신 그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낸다.⁴⁹⁾

5. 교회와 목회

1967년 새 신앙고백서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인류들의 화평을 고치는 일에 위임을 받았다. 그리스도는 이 사명을 위하여 교회를 부르셨고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 그리스도는 교회로 하여금 인류복지를 위하여 일하는데 가서 서게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교회로 하여금 모든 고난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고 그로써 교회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본다고 하였다.⁵⁰⁾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주님의 몸이요,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생을 완수하기 위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라는 것과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재래의 우리 신앙 고백은 한 구절도 거기서 찾아 볼 수 없다.⁵¹⁾ 한마디로 평하면 소위 새 신앙 고백은 교회의 사명은 오직 사회 개량과 인간 대 인간의 불화를 화해시키는 데 그 근본 사명이 있다고 강조하는 듯 느껴진다. 이것은 분명히 혼합 주의임이 틀림이 없다.

목회 신학의 기초 중 하나는 교회론⁵²⁾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관

49) *Inst.*, IV. 17. 4.

50) 1967년, 「새 신앙 고백서」, 제2부 1장

51) *Westminster Confession*, 21장 2절.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1998).

52) 칼빈은 부패한 로마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중심으로 한 교회관을 수립하였는데, 그는 교회를 피택자들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로 보고 교회를 떠난 성도란 존재할

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목회의 본질이 결정된다. 선행되어야 될 교회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관이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관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⁵³⁾ 즉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왕국과 몸 된 교회이다. 셋째로 성령의 교제이다.

칼빈은 먼저 교회의 본질을 “성도의 교통”에서 찾는다. 그는 「기독교강요」 제 IV권에서 교회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사도신경에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들이 형제로 하나가 되며 또한 교회의 정당한 권위를 승인해야 한다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 각자가 양무리에 속한 한 마리의 양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건적 교회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에 ‘성도의 교통’이란 말이 첨가되었다.”⁵⁴⁾

교회의 일치와 순결을 위한 칼빈의 열심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의 제도에 대항하여 기존 교회의 하나 됨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참 교회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그는 참 교회의 표지로서 설교된 말씀과 귀로 듣는 말씀 외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의 바른 시행을 말했다.⁵⁵⁾ 그리고 이런 표지가 보이지 아니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의 파괴가 뒤따를 뿐이라고 말했다.⁵⁶⁾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즉 어머니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교회는 유형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성도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기능은 구원에 필연적이라고 칼빈은 말한다(*Inst.*, IV. 1. 5).

53) 김득룡, 「개혁과 교회정치 신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4), p. 94-116.

54) *Inst.* IV. 1. 3.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W. Niesel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 자매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고 ②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것을 나누어야 하며 ③ 주님이 자기 지체에게 준 것은 모두 우리에게 속하며 즐기는 모든 은사는 우리의 소망을 굳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Wilhelm, Niesel,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1), p. 187-189.

55) *Inst.* IV. 1. 9.

56) *Inst.* IV. 2. 1.

교회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주님께 생명의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다. 주의 것이란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려져서 그 피 값으로 사신 것도 의미한다. 목회는 교회의 특성을 나타나게 하는데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교회의 표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목회는, 첫째 선지자로서 말씀의 참된 전파에 있고, 둘째로 제사장으로서 성례의 정당한 집행에 있고, 셋째로, 통치자의 왕으로서 권징의 신실한 시행 등의 임무이다.

결국 오늘날 우리 목회자는 먼저 변모된 우리의 목회 신학적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다. 우리 목회자는 이 목회 신학의 문제와 대결하여 전통적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근거한 목회 신학의 과제를 해결하고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VI. 목회의 목표(구원)

목회의 최종적인 목적⁵⁷⁾은 다름 아닌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목회의 방법과 수단이 동원되더라도 성도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목회는 성도로 하여금 구원이 삶에서 드러나게 하여 결국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1. 믿음의 결과로서의 회개 for Reformed Studies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의 은혜를 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회개와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다. 분명 순서는 믿음이 회개에 앞선다. 믿음

57) (K. O. Gangel, *Leadership for Church Education*, p. 34). 강겔(K. O. Gangel)은 “목회의 가치론적 본질은 영원한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에서 회개로 넘어가는 것이다. 회개와 죄의 용서는 복음의 전체이고 그러한 대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눅 24:47; 행 5:31). 그러나 이것 중 어느 것이 선행하느냐에 따른 의견은 다르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한 논의가 이 두 가지 논제를 빠뜨린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불완전하며 거의 무용한 것이 될 것이다. 자기의 뉘우친 결과로 믿음에 이르고 이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므로 믿음을 가지고 이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그에 따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나 거룩한 실생활은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일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런데 회개가 항상 믿음을 따를 뿐 아니라, 또한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복음을 전하여 죄가 용서됨을 알리는 목적을 죄인들이 사탄의 압박과 죄의 멍에와 타락한 생활의 질고에서 풀려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게 하려는 것이므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과거 생활의 과오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서며 회개를 실천하는 데 전력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음보다 회개가 선행한다고 한다. 또한 회개가 믿음을 따르거나 나무의 열매같이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부정한다.⁵⁸⁾

물론 진정한 회개는 믿음을 떠나서 성립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서로 분리할 수는 없을지라도 구별은 해야 한다. 믿음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서로 다른 것과 같이, 회개와 믿음도 항구적인 줄로 묶여 있지만 서로 결합할 필요는 있어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회개”에 해당하는 히브리말은 전환 또는 귀환이라는 뜻에서 왔다. 헬라 말은 마음 또는 의도를 바꾼다는 뜻에서 왔다. 하나님을 향한 회심(回心)을 전체적으로 “회개”라는 말로 이해하며, 믿음이 이 회심의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다. 곧 회개는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쪽으로 전향하는 일이며, 그를 순수하게 또 진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향이다. 그리고 회개의 요소는 옛 사람과 육을 죽이는 것과 성령에 의한 삶으로써 성립된다.

성경에 있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욕대로 방종하게 살

58) *Inst.*, III. 3. 1.

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며, 그들의 지도자가 부르는 곳으로 언제든지 갈 생각을 하게 됐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했다고 한다(삼상7:2-3). 또 요한과 바울은 모든 행동에서 이런 회개를 보이며 증거 하는 생활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눅 3:8; 행 26:20; 롬 6:4).⁵⁹⁾

2.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

그러므로 회개는 한 마디로 중생이라고 해석하는데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거의 말살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는 것이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3, 24),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 3:10)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중생에 의해서 아담 때문에 잃었던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회복은 한 순간이나 하루나 한 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평생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때에는 느린 걸음으로, 선택받는 사람들 속에서 육의 부패를 씻어 버리며, 그들의 죄책을 깨끗이 없애며, 그들을 성전으로 주께 바치게 하신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경주를 하게 하시며, 평생을 두고 달리도록 하신다.⁶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 것과 입음에 의해서 또는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죄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는 칭의는 간단히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것이라고 한다. 또 칭의는 죄를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⁶¹⁾

59) *Inst.*, III. 3. 5.

60) *Inst.*, III. 3. 9.

61) *Inst.*, III. 11. 2.

3.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됨

성경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전 7:20; 왕상 8:46). 그러면 그들은 행위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의를 얻을 것인가? 내가 우선 말하려는 것은,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행위도 항상 육의 불결로 더럽혀지고 부패해지는데, 이를테면 찌기가 섞여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눈앞에서는 별들까지도 순결하지 못하다(욥 25:5). 성자들이 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한다면, 공정한 보상으로 치욕을 받아야 할 것뿐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1) 선행도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동력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며, 질료인은 아들이신 하나님의 순종이며, 형상인은 성령의 조명인 믿음이며, 목적인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여 영생을 소유하게 할 때, 그의 일반적 경륜을 따라 선행을 수단으로 그렇게 하신다. 경륜의 순서에서 앞서는 것을 뒤따른 것의 원인이라고 부르신다. 간혹 영생이 행위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은 영생이 행위의 결과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하신 사람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롬 8:30), 앞에 온 은혜를 다음에 온 은혜의 원인으로 만드신다. 그러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에는, 행위에서 피난처를 구하라고 명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즉 우리의 선행은 그것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올리심으로써 앞에 있는 은혜를, 다음에 따르는 은혜를 첨가하는 원인으로 삼아 그의 종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이다.⁶²⁾

율법의 약속은 율법의 시행에 직결된 것으로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그에 대한 보상이 준비된 것이다.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

62) *Inst.*, III. 14. 21.

시며”라고 할 때에(신 7:9) 이것은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며 두려워하며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므로, 성경에 있는 모든 자비의 약속들은 당연히 이 목적, 즉 우리가 그 유익을 주시는 분을 경외하며 공경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선대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항구적인 의무를 지적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경외하기 위해서 그의 자녀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주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신자들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활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주께서는 그의 영의 지도를 받아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만 자녀의 정직한 휘장을 인정하시기 때문이다. 시편 15:1에 교회 백성에 관해서,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나이까?” 라고 묻는 것도 이와 관련한다. 그 대답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이다(시 24:4). 이것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자신과의 교제에 인도 하시며 그 교제 안에서 보호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방법이다. 아버지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므로, 신자들을 자신과 자신의 나라에 적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영으로 자신과 연결된 그들을 순결하게 만드신다.⁶³⁾

2) 보상의 의미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우하시되”라고(롬 2:6)하는 말씀은 설명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이 표현이 원인보다 일의 순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완성하시는 것이 틀림없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63) *Inst.*, III. 17. 6.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30).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심으로써만 자신의 생명 안에 받아들이신다. 그러나 그들이 생명을 소유하게 될 때까지는, 정하신 순서에 따라 그들 안에서 자신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선행의 경주를 통해서 그것을 소유하도록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행위에 따라 면류관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상한 말이 아니다. 그들은 행위에 의해서 영생의 면류관을 얻을 준비를 한다. 따라서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의 장본인이라든지, 구원은 그들의 행위에서 유래한다든지 하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자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면, 그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선행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또한 완성하실 것이다(빌 1:6).⁶⁴⁾

성경이 말하는 보상은 행위의 공로를 고려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받는 불행과 고난과 중상과 그 밖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의 선례를 따라(고후 6:13; 히 10:35, 11:26) 영생을 일종의 “보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요약하면, 그들이 당한 모든 재앙을 변화시켜 더욱 큰 복으로 만드신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은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은 인도해서 천국을 엿보게 하는 길이라고 해서 잘못이 아닐 것이다.

선행에 대해서 보상을 약속하시는 목적은 다소의 위로로 육의 약함을 도우시려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을 허영으로 교만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님은 무엇보다도 명백하다. 그러므로 보상에서 행위의 공로를 결론짓거나, 행위와 보상으로 비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⁶⁵⁾

64) *Inst.*, III. 18. 1.

65) *Inst.*, III. 14. 4.

VII. 마치는 말

지금까지 칼빈의 목회관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그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하고 필자 나름대로의 목회의 개념을 정리한 후 몇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본 논고를 마치려 한다.

1. 칼빈의 목회관 요약

칼빈의 목회관⁶⁶⁾은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신 때부터 자신의 목회를 시작하셨다. 전적인 타락 상태에서 스스로 헤어 나올 수 없는 인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며 구원을 위한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자체가 목회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계획, 즉 목회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선지직과 제사직 그리고 왕직을 수행하심으로 목회의 기반을 놓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목회관이 나타나는 데 그것은 목회의 완전한 모형이며, 완벽한 목회의 방법이고 영혼의 돌봄으로서의 목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

IV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서의 목회(복음사역) 사역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즉 은혜 받는 방편으로는 말씀과 교회의 사역을 통한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V장에서는 목회의 내적 실체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와 칭의가 선행을 배제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목회사역의 당위성과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성례의 중요성도 보여준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도전받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가 아닌가한다. 칼빈은 성례

66) 신복윤 교수는 “칼빈의 목회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째로 칼빈의 강조점은 말씀의 순수한 전파였다. 둘째로 칼빈이 강조한 것은 성례였다. 셋째로 칼빈이 강조한 것은 권징과 훈련이었다. 넷째로 칼빈이 주안점을 두고 힘쓴 것은 교육이었다(신복윤, pp. 257-275).

그 자체가 은혜의 수단이 아니지만 말씀의 지도아래서 얼마든지 은혜의 수단이 됨을 강조하고 성실한 실시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것은 목회에 있어서 필수적 사역으로 역설한다.

VI장에서는 목회의 목표로서의 구원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회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칭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하여야함을 주장한다.

이렇게 볼 때, 칼빈의 목회관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칼빈의 모든 교리적 원천을 성경과 하나님에게서 찾듯이 목회관 역시 그러함을 발견할 수 있다.

2. 목회에 대한 개념

이제 논자는 칼빈의 목회관을 근거로 하여 나름대로의 목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정의에 따른 목회에 대한 몇 가지 원리와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논고를 마치도록 한다.

그렇다면 과연 목회(Ministry)란 무엇인가⁶⁷⁾ 이 점에 대하여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억지로라도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택함

67) 데이빗 위얼스비(David Wiersbe)와 워랜 위얼스비(Warran Wiersbe)는 목회(ministry)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번역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to serve others)을 의미하는 것이며, “ministry”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단순한 “종”(servant)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들은 이 “ministry”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목회의 기초는 인격이다(the foundation of ministry is character). ② 목회의 본질은 봉사이다(the nature of ministry is service). ③ 목회의 동기는 사랑이다(the motive for ministry is love). ④ 목회의 척도는 희생이다(the measure of ministry is sacrifice). ⑤ 목회의 권위는 순종이다(the authority of ministry is submission). ⑥ 목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the purpose of ministry is the glory of God). ⑦ 목회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이다(the tools of ministry are the words of God and prayer). ⑧ 목회의 특권은 성장이다(the privilege of ministry is growth). ⑨ 목회의 능력은 성령이시다(the power of ministry is the Holy Spirit). ⑩ 목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the model for ministry is Jesus Christ). David Wiersbe & Warran Wiersbe, Making Sence of the Ministry (Chicago; Moody Press, 1983), pp. 34-35.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양육하는 일체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의 개념 정리에 나타난 몇 가지 원리에 근거하여 사역의 원천, 사역의 목적과 방편 그리고 사역의 목표에 대하여 간단한 제언과 함께 본 논고를 마치려 한다.

1) 사역(목회, Ministry)의 원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사역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을 전제하여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역의 근거와 원동력과 소명과 사명 등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찾으려는 자세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이다. 목회는 바로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이다.⁶⁸⁾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신 때부터 자신의 목회를 시작하셨다.

2) 사역(목회, Ministry)의 목적과 방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게 하며”(딤후 3:15)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과 말씀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일의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는 것이다.⁶⁹⁾ 그러므로 목회의 도구는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동시

68) 창 1:1; 요 1:1. 목회의 형이상학적 본질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형이상학이 실체를 논하는 학문으로 최고 원리, 즉 제일 원리의 학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우리들이 감각하여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그 배후에는 본체가 있을 것이라는 탐구의 학이다(K. O. Gangel, *Leadership for Church Education*, pp. 32-34).

69) 목회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되었던 인간들이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범죄로 진노 하에 있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일을 수종드는 데 있다. 둘째로 또한 그들을 잘 목양하는 데 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고 기르는데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기독교 철학에서 명백하게 밝혀주는 인생론을 목회 철학에 도입시켜 그 인생론을 분명히 해독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피조물인 것과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타락 상태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은 구속받은 새사람이 된 인생론이다(김득룡, 「현대목회신학원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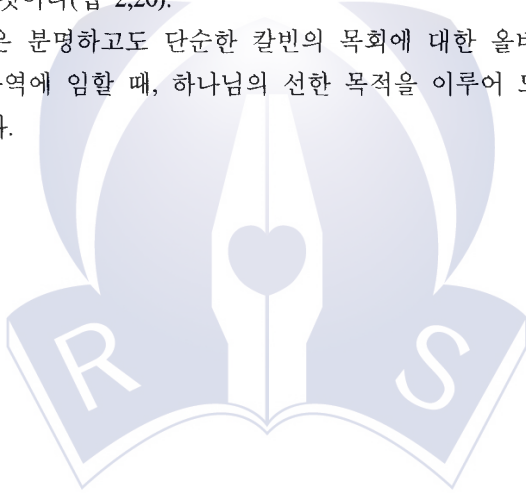


에 밝혀 주고 있는 정의이다(딤후 3:16-17).

3) 사역(목회, Ministry)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도록 양육하는 일체의 사역” 이 말씀 속에서 사역의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게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닮아 가도록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는 일체의 모든 사역을 말하는 것이다(엡 2:20).

이와 같은 분명하고도 단순한 칼빈의 목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목회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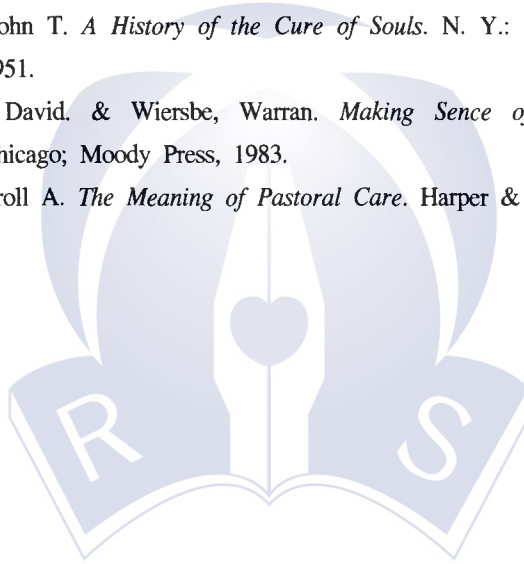
참고 문헌

- 김득룡. 「개혁과 교회정치 신강」.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4.
- _____. 「현대 목회학 신강」.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4.
- _____. 「현대목회신학원론」.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1.
- 김병원. 「목회학」. 서울: 개혁주의 실행협회, 1988.
- 박일민. 「개혁교회의 신조」. 서울: 성광문화사, 1998.
- 백동섭. 「새 목회학」. 서울: 성광 문화사, 1981.
- 석원태. 「목회신학원론」. 서울: 경향문화사, 2002.
- 이장식. 「현대 교회학」. 서울: 기독교서회, 1990.
- 이주영. 「현대 목회학」.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곽안련. 「목회학」. 서울: 기독교 서회, 1945.
- 신복윤. 「칼빈의 신학 사상」. 서울: 성광문화사, 1993.
- 임택진. 「목회자가 쓴 목회학」. 서울: 예장 총회 교육부, 1982.
- 유형심. 「목회 심리학」. 서울: 한국 기독교 문학 연구소 출판부, 1981.
-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서울: 총신대학 출판부, 1980.
- Calvin John. 「기독교 강요」(*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한철하 외 3인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4.
- Miller, Donald G. 「교회의 본질과 사명」(*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hurch*). 박상중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1.
- Nicholas, Ron. 「소그룹운동과 교회성장」(*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서울: IVP, 1986.
- Niesel, Wilhelm, 「칼빈의 신학」. 이종성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1.
- Anderson, Ray S. *Theological Foundations For Ministry*. Eerdmans: T. & T. Clark, 1979.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vol. I, II. trans., Henry Beveridge London: James Clarke & CO., 1953.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 _____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John T. McNeill(ed),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6.
- Gangel, K. O. *Leadership for Church Education*. Chicago: Moody Press, 1970.
- McNeill, John T. *A History of the Cure of Souls*. N. Y.: Harper & Bros, 1951.
- Wiersbe, David. & Wiersbe, Warren. *Making Sense of the Ministry*. Chicago; Moody Press, 1983.
- Wise Carroll A. *The Meaning of Pastoral Care*. Harper & Row, 1966.



개혁주의 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